

베이밸리-웨강아오대만구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kcpark@cni.re.kr

이 연구는 충남도의 베이밸리와 중국 광둥성의 웨강아오대만구 프로젝트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2024년 11월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한·중 합동 베이밸리 국제포럼』 시 충남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베이밸리 정책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의의
3. 웨강아오대만구 정책 배경, 내용, 그리고 의의
4. 웨강아오대만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충남도의 교류·협력 방안

요약

- 충남도는 광둥성과 공동으로 베이(만, 灣) 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여정을 시작하는 포럼 개최
 - 포럼명은 『한·중 합동 베이밸리 국제포럼』이며 포럼은 2024년 11월 1일 광둥성의 성회(省會) 광저우에서 개최
- 충남도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가 되는 도정의 핵심 프로젝트
 - 반면, 광둥성이 주도하는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발전 계획은 광저우의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연계하는 국가급 도시클러스터(메가시티리전)로 평가
-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밸리와 웨강아오대만구 간 성격이 유사한 양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
 - 첫째, 인적교류의 활성화. 양 지역 간 자매도시 확대, 공무원 교차연수, 관광교류, 연구협력, 민간교류 등을 적극 추진
 - 둘째, 양 지역 베이 경제권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한국의 미래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웨강아오대만구에 대해 국내 이해 부족, 또한 베이밸리에 대한 중국 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 지역이 상호 간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강화
 - 셋째, 관광테마파크 및 교육·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충남도에 중국테마타운을, 광둥성에 한국테마타운 조성 시 상호 협력하고 학생연수, 연구기관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양 지역 간 교육 및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

0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충남도는 환황해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충남도 미래 100년의 발전상 제시
 - 그동안 충남도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환황해포럼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지방정부와 대외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을 통해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미래 충남도 100년의 발전상 제시
- 충남도는 충남도보다 앞서 중국 국가급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광둥성 주도의 웨강아오대만구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 대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중국 방문(10.29.~11.4.) 기간 중 베이밸리 정책과 유사한 광둥성 웨강아오대만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충남도와 광둥성 간 정책 및 경제교류 강화를 위해 <한·중 합동 베이밸리 국제포럼> 개최(2024.11.1. 광주우)

<한·중 합동 베이밸리 국제포럼> 개요

- 포럼명: 「한중緣 베이밸리 국제포럼」
- 주제: 한·중 베이밸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협력
- 때·곳: 2024. 11. 1.(금) 18:00~20:40 / 광주우 백조호텔
- 주최: 충청남도, 한중문화우호협회,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 주관: 충남경제진흥원, 북부상공회의소, 광둥성 발개위, 공상연
- 후원: 광둥성인민정부, 주중한국문화원,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참석: 150여 명(도지사, 주광저우총영사, 광둥성 발개위 및 외판주임, 공동개최 대표, 한중 양국 기업인 등)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민선8기 베이밸리 정책을 통한 충청남도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고 충청남도 베이밸리와 광둥성 웨강아오대만구 간 베이(灣)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산업, 경제, 환경, 사회 등 상생·협력의 방향 제시
- － 특히, 본 연구는 11월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한·중 베이밸리 국제포럼>에서 충청남도가 베이(灣)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광둥성과의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표 1〉 광둥성 개황

구분	내용
지역명	광둥성(廣東省 Guangdong Province) / 약칭 '粤(월, 중국어 발음은 웨)'
면적	17.97만km ² (중국면적의 1.87%, 남한의 1.7배)
인구	1억 2,657만 명 (2022년 기준) *전국 31개 성시 중 최다, 세계 4번째 행정구역 인구
성회 및 주요 도시	성회: 광저우시(廣州市) 주요 도시: 선전시(深圳), 중산시(中山), 포산시(佛山), 둥관시(东莞), 주하이시(珠海)
주요 산업	금융업, IT산업, 과학기술, 전기기계, 석유화학, 방직업 등 － 1~3차 산업 비중 : 4.1%, 40.9%, 55.0%
GDP	2022년 GDP : 12조 9,119억 위안 * 전국 31개 성시 중 1위, 2위 장쑤성, 3위 산둥성 － 경제성장률 : 1.9% / - 1인당 GDP : 101,905위안 광둥성 GDP는 ' 21년에 중국 31개 성시 중 최초로 12조 위안을 돌파 싱가포르(1998), 홍콩(2003), 대만(2007)에 이어 2020년 한국의 경제규모를 초월
주요 지도자	서기(省委书记) : 황쿤밍(黃坤明) / 성장(省長) : 왕웨이중(王偉中)
특징	광둥성 경제 규모는 34년 연속 전국 1위 차지 － 광둥성을 포함한 泛주강삼각주는 泛장삼각(상하이, 장쑤, 저장 등), 環발해(징진지, 산둥, 랴오둥반도 등)와 함께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최대 경제권 중 하나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주자이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 제조업이 발달하여 산업체계가 완비된 '세계의 공장'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중심지로 그 규모는 중국 내 1위
위치	

자료: KOTRA(2023); 나무위키(광둥성) 등을 참고해 정리(지도는 두산 백과)

02

베이밸리 정책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의의

1. 개념 및 배경

1) 베이밸리의 개념

- “베이밸리(Bay Vally)”는 지리적으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인 아산만권역을 지칭하나 하나로 대형 프로젝트를 의미
-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개발을 위한 충청도청과 경기도의 상생 프로젝트로,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경기-충남도민을 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경기 남부-충남 북부를 아울러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GRDP 204조 원, 대학 34개에 이르는 대한민국 경제 100년을 책임질 거대 프로젝트¹⁾



[그림 1] 베이밸리 종합 구상도(출처: 충청도청 홈페이지)

1) 충청도청 홈페이지(베이밸리): <https://www.chungnam.go.kr/bayvalley/main/main.do>

2) 베이밸리의 추진 배경

- 첫째, 환황해 중심도시로써의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 필수
 - 충남도는 그동안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하면서 현재 GRDP 기준 국내 2~3위의 경제권을 형성했지만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충남도를 넘어 광역 경제권 간 협력의 필요성 대두
- 둘째, 산업 간 협력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
 - 충남도는 그동안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입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앞으로는 미래 첨단 간 융복합과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내 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
- 셋째, 국제적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
 - 국내 타 광역경제권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넘어 최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과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대두

2. 베이밸리의 비전, 목표, 핵심과제

1) 베이밸리의 비전

-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2) 베이밸리의 목표

- 베이밸리는 충남도와 경기도 간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3) 베이밸리의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과제

○ 베이밸리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과제는 다음 <표 2>과 같음

<표 2> 베이밸리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과제 내용

구분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과제
신성장동력 창출	1.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BMC) 조성	1) 베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2) Economic Security Sector 조성
	2.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3) 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4)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3. 자산·학연 R&D 혁신생태계 구축	5) 자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6) 기업 지역인재채용 목표제 도입
	4.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전진기지 조성	7)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8)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 수행	5.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 조성	9)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10)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6. 글로벌 우수 인력 유치기반 구축	11)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12)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 구상
	7. 환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	13)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조성(서산공항)
		14)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15) K-SPACE 개발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	8. 베이밸리 K-SPACE 조성	16)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 건설
		17) 베이밸리 순환철도 건설
	9. 베이밸리 초광역교통망 구축	18) K-골드코스트 조성
		19)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10.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확충	20) 베이밸리 생활지원 인프라 확충

4) 베이밸리 정책과제 추진단계

○ 베이밸리 정책과제는 과제의 선후경중을 따져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추진함. 단계별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최종적으로는 2025년 완료 예정

- 단기: 민선 8기 내
- 중기: 2027~2030년
- 장기: 2031~2050년

3. 베이밸리의 추진체계

1) 베이밸리의 추진 주체

- 베이밸리의 추진 주체는 충청남도와 경기도이며 참여 도시는 양 지역 각각의 4개 도시
 -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최근 예산군도 편입 결정
 -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 베이밸리를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설치
 - 실무협의회에는 민관합동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연구협력을 위해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진 실무협의회를 설치
 - 이를 통해 베이밸리 청사진 제시, 공감대 형성, 추진동력 확보의 전략 실행



[그림 2] 베이밸리 추진체계 및 3대 전략(자료: 충남도청(베이밸리) 홈페이지)

4. 베이벨리의 의의

1) 지정학적 의의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협력모델 제시

- 베이벨리를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인 경기도와 비수도권인 충청도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기존 메가시티는 경남권, 충청권 등 주로 지역 내 연계·협력을 도모했으나 베이벨리는 해상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아가 초광역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에는 당진항과 서산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가 거점항구로서의 위상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벨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이들 항구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국토중서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항구도시로서의 국제적 입지 강화

- 베이벨리의 핵심 거점인 아산만권에는 충청도의 당진항과 서산항이 입지하고 경기도의 평택항이 입지
- 현재 당진-평택항과 서산항 등은 인천항에 견주어 규모가 작으나 이들 항구 간 연계·협력을 실현한다면 그 규모는 인천항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확장성이 많아 향후 대중국 무역항으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동남아, 서남아, 유럽까지 교역을 확장할 수 있어 그 발전 가능성은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2) 경제·산업적 의의

○ 권역 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상생발전 도모

- 아산만권 지역에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34개 대학들이 입지해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
- 또한 이 지역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와 수소경제 생태도시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미래 대안 에너지의 중심으로 발전
- 따라서 두 지역이 협력해 나간다면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아산-평택항은 국내 최대 항구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

○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는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람의 이동이 매우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 간 촘촘한 교통망 연결이 이뤄진다면 동북아 최대 무역항이자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 농후
- 베이벨리 프로젝트는 안산 대부도와 보령해저터널 연결, 해양정원과 마리나거점항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베이벨리는 동북아 최대 해상물류의 거점기지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

3) 사회·문화적 의의

○ 지역 간 갈등 완화로 인한 상생발전 견인

- 과거 충청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는 아산만으로 인해 지역적 단절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존재
- 특히 최근까지 당진평택항은 양 지역 간 경계 설정 문제로 갈등이 지속해 왔음. 만약 베이벨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러한 경계 설정 문제는 초월되어 두 지역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이주민, 다문화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

- 현재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충남과 경기도의 각 지역에는 많은 결혼이주민과 취업이민자가 거주 중
- 베이벨리가 국제항구로써의 입지를 구축해 나간다면 이 지역의 다문화, 이민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우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베이벨리 2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03

웨강아오대만구 정책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의의

1. 개요 및 배경

1) 웨강아오대만구 개요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는 기존의 주강삼각주에 위치한 광둥성의 9개 도시에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를 더해 “9+2” 형태의 초광역 도시군을 의미
 - 영문명: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 *약칭: the Greater Bay Area(GBA)
 - 광둥성 9개 도시: 광저우시(广州市), 선전시(深圳市), 주하이시(珠海市), 포산시(佛山市), 후이저우시(惠州市), 둥관시(东莞市), 중산시(中山市), 장먼시(江门市), 자오칭시(肇庆市)



[그림 3] 웨강아오대만구의 지리적 범위(자료: 百度地圖)

- 중국 정부가 공표한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 Greater Bay Area) 전략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경제 통합 계획으로, 이 지역을 세계적인 경제 및 기술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국가 전략²⁾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이 지역에서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함
 - GBA는 과학,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품질 개발을 위한 시범 구역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
 - 2023년 광둥성의 총 연구개발(R&D) 지출은 약 4,600억 위안으로, 이는 지방 GDP의 3.39%를 차지
- 웨강아오대만구의 실무기관은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을 위한 광둥성 영도그룹 사무소’이며 여기에는 4개 기관 및 정부가 참여
 - 참여기관 및 정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광둥성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
 -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을 위한 광둥성 영도그룹 사무소’는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을 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 중([그림 4] 참고)

〈표 3〉 웨강아오대만구 기본 개황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중국어명	粵港澳大湾区	인구	86,439,700명 (2022년 12월 기준)
영문명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주요 공항	홍콩 국제공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행정구역 유형	만구(灣區), 국가급도시군	주요 기차역	홍콩 웨스트 카오룽 역, 광저우 남부 기차역, 선전 북부 기차역
지리적 위치	광둥성(廣東省)중국 중부 및 남부(중국 본토의 9개 도시); 주강 하구(홍콩)의 동쪽; 주강하구의 서쪽 (마카오)	국내 총생산	14조 위안 이상(2023년))
규모	5.59만km ²	약칭	the Greater Bay Area(GBA)
부속 지역	9개 현(都)급 도시와 2개 특별행정구	중심도시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
주관기관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을 위한 광둥성영도그룹사무소	참여기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광둥성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

자료: 百度百科 粵港澳大湾区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2) 산업연구원 조은교 연구위원의 자문 의견을 정리한 것임



자료: 粤港澳大湾区门户网 (cnbayarea.org.cn)

[그림 4] 웨강아오대만구 홈페이지

○ 웨강아오대만구는 세계 3대 베이(Bay) 못지 않는 경제권 형성

- 웨강아오대만구는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경제 규모와 자원,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향후 중국의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
- 이 지역의 인구는 약 8,643만 명(2022.12 기준), GRDP는 약 14조 위안(2023 기준)이며, GDP는 우리나라 수준(2022년 우리나라 GDP 초월)
- 조철 외(2019)의 보고서에 따르면 웨강아오대만구는 샌프란시스코만구, 뉴욕만구, 도쿄만구에 비해 GDP, 1인당 GDP, 3차 산업 비중, 세계 500대 기업 수 등에서는 뒤지지만 인구 항공여객 운송량,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에서는 규모가 가장 큼

〈표 4〉 웨강아오대만구와 주요 만(灣) 경제권의 비교

구분	웨강아오대만구	샌프란시스코만구	뉴욕만구	도쿄만구
면적(만km ²)	5.59	1.79	2.15	3.65
인구(만 명)	6,958	768	2,340	4,396
GDP(억 달러)	15,134	8,000	16,574*	18,870
1인당 GDP(만 달러)	2.2	10.2	6.0	4.3
항공여객 운송량(만 연인원)	20,169	8,134	13,224	12,389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만TEU)	6,834	237	625	773
3차 산업 비중(%)	62	83	89	82
세계 500대 기업 수(개)	17	28	22	60

자료: 조철 외(2019) 참고해 재정리

주: 웨강아오대만구는 2017년, 여타 지역은 2016년 데이터임

○ 특히,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만큼 혁신도시로 성장³⁾

- 선전에는 ZTE, Huawei, Tencent 등 많은 중국 빅테크의 본사와 연구개발 센터가 주재
 - 선전의 혁신적인 환경은 선도적인 민간 드론 회사인 DJI와 중국 최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BYD를 포함하여 여러 선도적인 혁신 기업을 육성
- 동 전략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이 지역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존재
- 홍콩과 마카오의 혁신역량과 자본을 연계하여 중국 본토와의 시너지를 창출

2) 웨강아오대만구의 배경

- 중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추진해 온 도시군(城市群, city cluster)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이 존재⁴⁾
- 원래 도시군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상호 차별화된 역할을 가진 복수의 도시들을 사회경제적으로 통합한 것을 지칭
 - 현재 중국의 3대 경제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삼각(長三角, 창장 삼각주), 주삼각(珠三角, 주강 삼각주)은 각각 복수의 도시군들로 구성
- 리커창 총리가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규획을 발표한 이후 발전⁵⁾
-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규획은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하였으며, 그해 7월 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광둥성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이하 ‘4개 기관’)가 홍콩에서 ‘웨강아오 협력 심화, 대만구 건설 기틀 추진 협의(深化粵港澳合作推進大灣區建設框架協議)’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
 - 협의서에 따르면 ‘일국양제’ 방침을 준수하면서 혁신협력기제를 구축하여 상호호

3) 이하 내용은 조은교 연구위원(산업연구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해 정리

4) 중국 도시전문가인 박철현 교수(국민대)의 의견을 참고해 정리

5) 이하 세부 내용은 서종원이문형 외(2019, 68)의 내용을 참고해 정리

- 해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공동으로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을 추진 노력 제시
- 웨강아오대만구 개발 계획의 근본적 배경에는 웨강아오대만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베이(灣) 경제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

○ 홍콩 및 대만과의 경제적 통합, 투자 확대, 경쟁력 강화

-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본토의 경제권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국제적 경제 허브로 재생산하려는 의도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베이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의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 무역, 기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며 국제적인 금융, 무역, 첨단기술의 중심지를 형성하여 미국과의 경제적 경쟁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우월적 위치를 점하려는 목표 의식

2.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⁶⁾

1) 경과

- 2017년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시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협력 심화를 촉진하고, 웨강아오대만구 도시클러스터를 위한 개발 계획을 연구 및 수립하며, 홍콩과 마카오의 독특한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대외 개방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시
- 2017년 7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홍콩에서 열린 <광둥·홍콩·마카오 협력 심화 및 대만구 건설 촉진에 관한 기본 합의>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 2018년 3월 7일, 시진핑 총서기는 광둥 대표단 심의에 참석하여

6) 본 내용은 2019년 2월에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웨강아오대만구발전규획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의 전문 중 중요 부분을 발췌해 정리

웨이강아오대만구 건설의 중대한 기회를 잡고 홍콩, 마카오와 손잡고 건설을 가속화 할 것과 이 지역을 국제 일류 베이 지역과 세계적 수준의 도시클러스터를 만들 것을 지시

- 2019년 2월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웨이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를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와 부처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통지문 발표

2) 주요 내용

① 기본 원칙

- 첫째, 혁신과 개혁을 주도
 -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지역 협력 혁신 시스템을 개선하며 국제 혁신 자원을 수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혁신 개발 지역을 구축
 -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핵심 분야와 핵심 분야 개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추진하며, 개혁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만(大灣) 지역의 다양한 요소의 편리한 이동과 최적의 배치 촉진
- 둘째, 개발을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 지역 간 협력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며, 정책 조정 및 기획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며, 발전의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 셋째, 녹색 개발과 생태 보호
 - 생태문명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발전 이념을 확립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국가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실시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와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견지
 - 엄격한 토지 보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녹색 및 저탄소 생산, 생활 방식, 도시 건설 및 운영 모델의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에게 좋은 생태환경을 제공하며, 대만(大灣)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 넷째, 개방과 협력, 공리와 공영

- ‘일대일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며,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규칙에 부합하고, 국제 협력 및 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우위의 육성을 가속화
- 홍콩과 마카오의 독특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방형 협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개선하며, 본토와 홍콩, 마카오의 호혜 협력 심화

○ 다섯째, 발전을 공유하고 민생을 개선

- 사람 중심의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더욱 공평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
- 국민의 생활보호 및 개선 수준을 높이고, 고품질 공공재와 서비스 공급을 늘리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증진하여 대만구(大灣區) 지역 주민들이 더욱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여섯째, ‘일국양제’를 원칙으로 하며 법에 따라 행동

- ‘일국양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일국’ 원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국’의 기초를 견지하며 ‘양제’의 혜택을 잘 활용
-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통치권을 수호하고 특별행정구의 높은 자치권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헌법과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
- 국가 수요와 홍콩, 마카오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시장 중심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광둥, 홍콩, 마카오의 상호 보완적 우위를 촉진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

② 발전 전략

○ 첫째, 활기 넘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클러스터

- 홍콩과 마카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광둥의 장점을 개혁개방의 선봉으로 삼아 계속해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국가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앞장
- 현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시장 시스템에 보다 잘 통합하며 세계 신흥 산업, 첨단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 산업의 기반과 세계적 수준의 도시클러스터를 구축

○ 둘째,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국제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중심

- 세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선두를 목표로 혁신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신기술, 신산업, 신형식, 신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혁신을 주요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시스템 형성을 가속화
- 과학 연구 개발과 산업 혁신에 있어서 홍콩과 마카오의 장점은 혁신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병목현상과 제약을 해소하고 활력을 더욱 자극
-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모아 글로벌 기술 혁신 고지와 신흥산업의 중요한 원천을 구축

○ 셋째,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중요한 엔진

- 국가 개방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활용하고 주강삼각주 9개 도시의 개방형 경제 발전 수준을 향상하며 두 국제 및 국내 시장과 두 자원의 효과적인 결합을 촉진
- 더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고 영향력 있는 국제 운송 및 물류 허브이자 국제 문화 교류 센터 건설

○ 넷째,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심도있는 협력을 위한 시범구

- 광둥, 홍콩, 마카오 간 우호적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선전 첸하이(深圳前海), 광저우 난사(廣州南沙), 주하이 형친(珠海橫琴) 등 주요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조화로운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탐구하며 포괄적인 발전을 심화
- 주강삼각주와 홍콩, 마카오 9개 도시 간의 실용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인력, 자금, 자금의 흐름을 촉진하고 광둥, 홍콩, 마카오 발전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고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의 긴밀한 협력에 모델을 제시

○ 다섯째, 생활, 업무, 여행에 적합한 고품질 생활공간

- 사람 중심의 개발 이념을 견지하고, 생태문명 개념을 실천하며, 현대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클러스터의 지능적 관리를 실현하고, 민생 프로젝트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대만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
- 홍콩 및 마카오 주민에게 본토에서의 학습, 취업, 창업, 생활에 보다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다문화 교류 및 통합을 강화하며 생태 안전, 환경 개선, 사회 안정, 문화 번영의 아름다운 만구(灣區) 건설

③ 발전 목표

- 2022년까지 이 지역의 종합적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광둥, 홍콩, 마카오 간의 협력이 심층적이고 광범위해지며,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 또한, 활력이 넘치고 혁신 역량이 뛰어나며 산업구조가 최적화되고 자원이 원활하게 흐르며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갖춘 국제 도시로 발전할 것임. 세부적인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역 발전을 더욱 조화롭게 하고, 분업이 합리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순차적 발전을 하는 도시클러스터의 발전 패턴을 기본적으로 확립
 - 협력적 혁신 환경이 더욱 최적화되고 혁신 요소가 빠른 속도로 수집되며 신기술의 독창성 능력과 과학기술 성과를 전환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
 -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이 더욱 심화되고, 전통 산업이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신흥산업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금융 등 현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 교통, 에너지, 정보, 수자원 보호 등 기반 시설의 지원 및 지원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 개발 및 운영 능력이 더욱 향상
 - 녹색, 스마트, 에너지 절약, 저탄소 생산과 생활 방식, 도시 건설 및 운영 모델이 초기에 확립되어 주민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행복이 증대
 - 새로운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되고, 광둥, 홍콩, 마카오 시장 간의 상호 연결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다양한 자원 요소의 흐름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화되며, 문화 교류 활동이 더욱 편리하고 활발
- 2035년까지 대만구는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과 발전 모델을 형성하고,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고 대만구의 시장이 고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다양한 자원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흐르게 되며 지역 발전의 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더 풍요로운 주민 생활의 실현
- 또한, 사회문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문화 소프트웨어가 대폭 제고되고, 중국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심오해지고, 다양해지며 문화 교류와 통합이 더욱 강화되고, 자원의 보존과 집약적 이용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되며 생활, 업무, 여행에

적합한 세계적 수준의 만(灣) 지역의 완전한 건설

④ 핵심 도시의 발전 목표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에서는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 등 4개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의 성과를 주변 도시로 확산할 것을 요구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는 이들 4개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그 발전의 효과가 주변 도시로 확산되도록 도시 간 연계·협력 추진

〈표 5〉 웨강아오대만구 4대 핵심도시의 발전 목표

도시(地區)	발전 목표
홍콩	국제금융, 해운, 무역센터, 국제항공허브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글로벌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 허브, 국제자산관리센터, 리스크관리센터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금융, 상업, 물류, 전문서비스 등을 추진 고급 및 고부가가치 발전 방향으로 혁신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신흥 산업을 육성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국제 대도시를 건설
마카오	중국과 포르투갈어권 국가 간의 비즈니스 협력 서비스 플랫폼인 세계 관광 및 레저 센터를 건설하고, 경제의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문화를 주류로 삼고 다문화 공존의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
광저우	국가중심도시와 종합관문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제상업중심지와 종합교통중심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 교육문화중심지의 기능을 육성, 강화하고 국제적인 대도시 건설
선전	경제특구, 국가경제중심도시, 국가혁신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현대적인 국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도시로 재탄생

자료: 中國中央·國務院. 2019. 〈粵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第二节 完善城市群和城镇发展体系..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에서는 각 지역별 발전 목표를 자리매김
 - 광저우시(广州市): 대만구역도시군핵심관문도시
 - 선전시(深圳市): 국제과학기술산업혁신도시
 - 주하이시(珠海市): 국제혁신자원중개도시
 - 포산시(佛山市): 제조업혁신센터

- 후이저우시(惠州市): 녹색현대화생태도시
- 둥관시(东莞市): 국제혁신제조센터
- 중산시(中山市): 주장(珠江)서안구역과기혁신연구센터
- 장먼시(江门市): 세계화교화인창업혁신도시
- 자오칭시(肇庆市): 서남부연결허브관문도시
- 홍콩(香港): 국제금융, 항운, 무역센터
- 마카오(澳門): 세계관광휴양센터



자료: 百度圖片

[그림 5] 웨강아대만구 내 각 도시별 발전 위치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 발표 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세부 핵심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 진행 중
- <선전을 지원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에 관한 의견: 关于支持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的意见>
 - <형친 광둥-마카오 심층 합작구 건설 종합 방안: 横琴粤澳深度合作区建设总体方案>
 - <첸하이-선전-홍콩 현대서비스산업 합작구 개혁개방의 전면 심화를 위한 계획: 全面深化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改革开放方案>
 - <세계를 향한 광둥, 홍콩, 마카오 간 포괄적 협력 심화를 위한 광저우 난사 종합 계획: 广州南沙深化面向世界的粤港澳全面合作总体方案>
 - <허타오-선전-홍콩 과학 기술 혁신 합작구 선전파크 개발 계획: 河套深港科技创新合作区深圳园区发展规划>



자료: 百度圖片

[그림 6] 형친-광둥-마카오 심층 합작구(橫琴粵澳深度合作區)

3) 의의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에서는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 첫째, ‘일국양제’의 실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것을 제공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사회 발전 기회와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본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을 안정적으로 유지
 - 둘째,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모멘텀 배양을 가속화하며, 혁신 주도 발전을 실현하고, 중국의 경제 혁신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구축
 - 셋째,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경제 협력에 고수준의 인력과 자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플랫폼을 구축
 - 넷째,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상호 간의 개방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지역 간 융합의 중요한 지원지역을 구축

4)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계획 및 현황⁷⁾

○ 광둥·홍콩·마카오 통합 거대 경제권 조성

- 중국정부는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주강삼각주 도시 업그레이드 행동을 전개하고 홍콩·마카오와 공동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계획을 발표
-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협력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나, 대만구(大灣區) 개념과 결합해 주강삼각주 지역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과 협력이라는 프레임을 제시

○ 해상대교 및 고속철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 **해상대교:** '18~'24년간 해상대교 건설로 육로운송을 확대할 계획
- 홍콩-주하이·마카오를 연결하는 55km 길이의 세계 최대 해상대교인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를 비롯해, 광저우-둥관을 잇는 12.8km 길이의 난사대교(南沙大橋), '24년 완공 예정인 선중통도(深中通道) 등은 광둥성 동서를 연결



강주아오대교(55km, 세계 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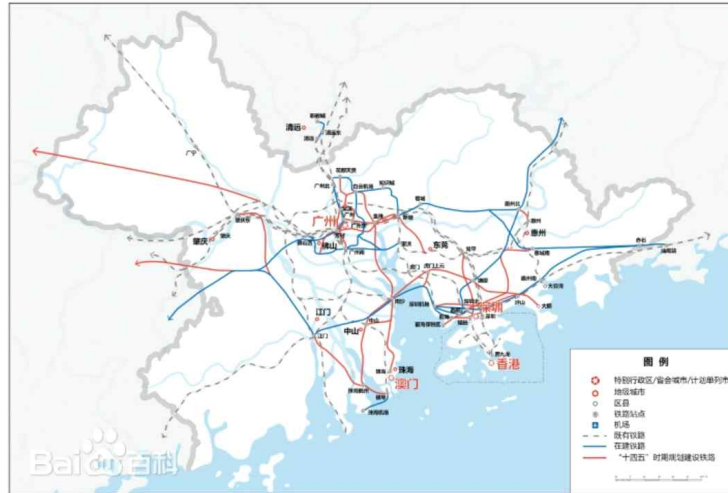


난사대교

[그림 7] 강주아오대표와 난사대표(자료: 百度圖片)

- **고속철:**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을 비롯해 중국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 확충을 통해 이동시간 단축

7) KOTRA(2023) 등을 참고해 재정리



자료: 파란색은 현재 건설 중인 철도선, 빨간선은 2035년까지 건설 계획

[그림 8] 웨강아오대만구 철도교통 계획도

○ 다양한 수단을 통한 광역 교통망 구축⁸⁾

- 대만구는 “12312”라는 교통계획을 가지고 있음. 대만구 주요도시는 1시간 내, 대만구에서 광둥성의 다른 지역까지 2시간 내, 대만구에서 인접성까지 3시간 내, 세계의 주요 도시까지 12시간 내라는 계획을 의미
- 고속철을 통해 1시간 내 광저우-홍콩 이동이 가능하고(고속철은 광저우남역(广州南站)이 중심이 되지만 최근 북쪽에 위치한 바이윈공항 근처의 광저우바이윈역(广州白云站)을 대규모로 확대해서 대만구의 항공연계성 제고), 각 도시 내 지하철의 연장선격인 도시 간 철도가 모두 개통돼 5개의 도시를 연결
- 홍콩과 주하이로 연결하는 강주아오(港珠澳)대교에 이어(江门지역으로 연결되는 黄茅海跨通道도 개통)주강델타와 선전을 연결하는 선중대교(深中通道)가 연결되고 대만구를 에워싼 광저우 난사(南沙), 주하이 형친(横琴), 선전 치엔하이(前海) 자유무역지대와 배후의 허타오(河套)지역이 고속도로 등의 육로로 모두 연결
- 한편, 세계 최고의 드론기술을 바탕으로 선전에서 eVTOL을 비롯한 저고도 비행체를 전면 운용할 뿐 아니라 택배와 음식 딜리버리 포함) 선전과 주강델타 사이에서도 비행택시를 운행할 계획

8) <https://desert-outrigger-040.notion.site/122d8b8eabbd80e08e7cfeec6a26fd53?pvs=4> 大湾区 - 交通发展计划를 참고해 정리

○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산업벨트 형성

- 동부 지식집적형 산업벨트: 광저우 동부·중부, 둥관, 선전 등 광둥성 동부지역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
- 서부 기술집적형 산업벨트: 광저우 북부·남부, 포산, 중산, 주하이 등 광둥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장비제조업, 농업 등 기술집적형 산업 형성
- 남부연해 생태환경보호형 중화학 산업벨트: 후이저우, 선전, 주하이, 장먼 등 주강삼각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업과 석유화학 등 산업이 발달
- 홍콩: 국제금융, 무역 및 물류센터, 대외개방 채널 역할 수행
- 마카오: 여행, 휴양도시 및 포어(포르투갈어) 국가 교류 플랫폼 역할 수행

○ 대만구와 연계되는 광저우시의 도시발전 계획⁹⁾

- 광저우는 대만구의 4대 도시중 대만구발전 계획에서 가장 중시되는 지역임. 구도심이 서북쪽에 위치하고, 그 동쪽에 CBD주강신성(珠江新城: 서울의 강남에 해당)이 있음. 지금은 주로 대만구로 이어지는 동쪽의 황푸(黃浦區), 판위(番禺), 난샤(南沙區)를 중심으로 도시 발전이 전개되고 있음. 판위구의 신CBD(관교에 해당)에는 초국경전자상거래로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중국기업인 SHEIN과 Temu의 중국 본사가 자리잡고 있고, 황푸구의 3성1도(三城一島) 계획에는 일대일로 무역 및 산업과 관계된 해사성(海絲城)이 위치
- 난샤 과학성(科學城)은 광저우시가 중국과학원과 함께 협력하여 건설하는 대만구종합국가과학센터의 역할을 맡음. AI 기술연구에 역점을 둔 홍콩과학기술대학 대학원의 광저우 분원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홍콩이나 마카오 출신 인력이 참여하는 기술 스타트업도 이곳 산업단지에 많이 둥지를 틀어서 자본펀딩이나 기술지원을 받음

○ 선전과 홍콩을 잇는 허타오(河套)과학기술창업단지¹⁰⁾

- 선전과 홍콩 접경에 위치한 허타오과학기술혁신협력단지에는 홍콩대학, 홍콩과기대, 선전 남방과학기술대, 중국과학원 등이 연구소와 분원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2023년부터 중국정부와 홍콩정부 양쪽의 지원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전략이 가속화

9) <https://desert-outrigger-040.notion.site/122d8b8eabbd80489ea1da260bf0dd54?pvs=4> 大灣區 - 廣州東部城市規劃을 참고해 작성

10) <https://desert-outrigger-040.notion.site/122d8b8eabbd80489ea1da260bf0dd54?pvs=4> 大灣區 - 深圳河套地區를 참고해 작성

04

웨강아오대만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충남도의 교류·협력 방안

1. 시사점

1) 역사적 측면

○ 대외 무역과 해외 진출입의 관문 역할 지속

- 광둥성, 홍콩, 마카오는 중국 대륙의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진출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외 개방성과 포용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 중국은 한 때 외세의 강압적인 개방에 대항하다 아편전쟁 등의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광둥성지역은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성장
- 광둥성은 원래 1980년대 선전, 산터우, 주하이 등 최초의 경제특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불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실험’을 통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험’에도 적극적이고 개방적임

※ 참고로 광둥성은 중국 화교화상의 본거지이기도 함. 동남아 진출 화상의 대부분은 광둥성 출신이고 이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때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 많은 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

○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의 지속 추진

-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후 중국에서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이념논쟁에 휩싸였을 때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시찰하고 사회주의든 자본

주의든 지속적인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남순강화를 발표해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광둥성의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해 현재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경제 규모가 1위로 발전함. 특히 홍콩의 주변 도시였던 선전은 현재 홍콩의 경제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개혁개방의 정당성이 확보
- 이 때문에 2019년 2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웨이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강요>는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노선과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해상실크로드 부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

●(충남도에의 시사점) 웨강아오대만구와 베이벨리(아산만)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 공유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은 과거 청말 시기 영국의 침략으로 아편전쟁(1840~60)이 발생해 홍콩지역이 영국령으로 넘어가는 등 역사적 아픔을 겪은 지역이지만 이후 새로운 사상과 개혁개방을 통해 현재 중국 내 최대 도시클러스터(메가시티리전)를 형성
- 아산만 일대는 1894년 발생한 청일전쟁의 본거지였음. 이 전쟁으로 천안과 아산 일대 주민들은 청군과 일군의 전쟁 사이에서 큰 희생을 당하는 역사적 아픔을 겪음.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아산만 지역은 핵심 거점지역으로 성장함.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리적 우세로 아산만 일대는 비약적으로 성장

2) 정치적 측면

○ ‘일국양제’의 지속 추진

- 광둥성, 홍콩, 마카오는 범주강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으나 광둥성은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를 기반하고 있고 홍콩은 1997년 영국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고, 마카오는 1999년 포르투갈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듯 각기 다른 체계를 기반으로 성장
- 웨강아오대만구는 각기 다른 정치적 배경 하에 있는 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정치체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각자의 특색과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국양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의 표상

○ 중앙정부가 정책을 계획을 주도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은 2019년 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공표한 것임. 즉,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실현

- 현재 웨강아오대만구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은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을 위한 광둥성 영도그룹 사무소’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 기관인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지방정부인 광둥성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가 참여
-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을 위한 광둥성 영도그룹 사무소’는 광둥성의 성회인 광저우시에 소재하며 광둥성정부가 영도그룹을 주도

●(충남도에의 시사점) 웨강아오대만구는 베이밸리(아산만) 정책에 정치적 전략 제공

-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10곳의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며 현재 지역 간 협력 발전을 위해 광역도시를 통합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함.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점(세종시, 혁신도시), 선(메가시티)을 발전시키는 데 국한된 것으로 판단
- 베이밸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하는 발전정책을 초월하고 내륙 도시 위주의 통합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경제권의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보유
- 따라서 이러한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웨강아오대만구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동할 필요성 존재

3) 경제적 측면

○ 자원 및 요소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통한 산업 혁신 창출

- 광둥성의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는 지역적 특색과 자원을 가지고 성장해 왔음. 예를 들어, 광둥성의 선전은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했고, 홍콩은 금융과 물류 산업이 발달했으며, 마카오는 관광휴양업이 발달
- 하지만 이들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 연계협력이 필수적

이며 이들 통해 지역의 발전과 혁신이 지속 가능

○ 자원의 분산 배치와 투자 확대로 지역 통합발전의 효율성 증대

- 웨강아오대만구의 핵심 도시들은 자원과 요소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 경제적 병목현상 및 지체현상이 발생해 경제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대두
- 따라서 현재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과 요소를 이들 지역 이외로 확산시켜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개혁개방의 경제적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개혁개방의 성과가 공유될 것을 도모

○ 과학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기술 허브로 성장¹¹⁾

- 웨강아오대만구는 국제적인 금융 및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첨단기술 및 신흥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뒷받침되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신기술, 혁신 파크, 창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
- 특히, 선전은 GBA의 핵심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으로, 차세대 정보 기술, 생의학 기술, AI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혁신을 주도
- 광저우는 AI, 항공우주 및 생의학 기술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급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촉진
- 최근 선전은 자율제조의 메카로 부상했으며(2024년 10월에는 화웨이 홍콩 자율주행 시범센터가 설립) 선전 하이테크개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을 지속 육성 중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24년 9월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 통계에 따르면 도쿄-요코하마에 이어 웨강아오대만구는 세계 2위의 기술클러스터로 선정

●(충남도에의 시사점) 베이밸리 내 자원과 요소의 원활한 유동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도모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의 핵심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과 요소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켜 자원과 요소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경제 발전과 지역혁신을 촉진함.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통여건 개선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11) 김기호(경희대), 조은교(산업연구원)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작성

-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경기도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충남도 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자원과 요소를 충남의 중남부 지역까지 확산시켜 지역 간 동반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함. 최근 베이밸리의 범위를 예산군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 일환으로 판단
- 베이밸리 내 첨단 빅테크 기업, AI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교육 생태계 구축이 밀바탕되어야 할 것임. 국내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을 베이밸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

4) 지리·교통적 측면

○ 웨강아오대만구의 핵심사업인 교통여건 개선 경험 참고 필요

- 웨강아오대만구와 충남도 베이밸리(Bay Valley) 모두 대양(大洋)으로 이어지는 만과 항구를 갖추고 있으며, 배후에는 기술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 구비
- 하지만, 베이밸리 지역은 웨강아오대만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며, 역내(域內)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건설이 아직은 초보 단계라는 차이도 존재

○ 웨강아오대만구 내 거점 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은 인구 8천만 명, 면적 56,000km²의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을 통해 11개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거점도시인 광저우-주하이, 광저우-홍콩, 주하이-홍콩까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는 만나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교통혁신을 가속화 중

●(충남도에의 시사점) 충남도는 웨강아오대만구의 교통인프라 건설 관련 장기 플랜과 실천 참고 필요

- 1990년대 후반 ‘주삼각 지역 통합’ 기획부터 시작된 교통 인프라 건설 관련된 중국 웨강아오대만구 측의 장기적 플랜 수립과 실천 경험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베이밸리 프로젝트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참고가 필요

5) 사회문화적 측면

○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지향

- 웨강아오대만구인 광둥성, 홍콩, 마카오는 정치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존재해 왔으며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는 이들 지역 내 교류와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의 목표는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정치, 문화, 언어 체계에서 오는 장벽을 극복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판단

○ 인구의 분산 배치와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 촉진

- 웨강아오대만구는 지역 간 인재교류도 추동하고 있음. 특히 인구가 밀집한 선전, 홍콩, 마카오, 광저우의 인구를 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를 유도
- 웨강아오대만구는 인재육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음. 현재 광둥성은 인구가 1억 2천만여 명이지만 중산대학, 화남이공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명문대학이 부재한 상태임. 하지만 인구 700만 명인 홍콩에는 홍콩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이공대학, 홍콩중문대학 등 세계 우수대학이 존재
-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은 이들 홍콩대학의 분교를 광둥지역으로 유치해 우수한 인재 배출과 지역혁신을 추진

●(충남도에의 시사점) 베이밸리 내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혁신 촉진

- 베이밸리 내에는 34개의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이밸리 프로젝트와 공조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 베이밸리 지역 내 국제적인 우수한 대학을 유치해 국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베이밸리의 위상도 제고
- 한편, 웨강아오대만구는 같은 중화권이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경제시스템, 통화 등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성에 기반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이질적인 구성으로 인한 균열과 혼란의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처 방식은 향후 충남도 베이밸리의 리스크 관리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교류·협력 방안¹²⁾

1) 인적교류 활성화

○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충남도와 광둥성 간 자매도시 확대, 공무원의 교차 연수, 상호 관광 활성화, 민간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한 상호 업무 협의 및 협약 진행
- 양 지역의 대학들의 교환 프로그램, 온라인 학점 교류, 공동 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한 교육 협력의 강화

○ 양 지역 간 기술인력,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 충남도와 광둥성의 양 지역 간 청년들이 상호 방문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기술 자문을 얻고 스타트업 간의 교류 및 투자유치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첨단기술 허브로서의 이미지를 강화
- 특히, 중국에서 첨단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선전 실리콘밸리와 협력 강화

2) 베이 경제권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에 대한 국내 올바른 인식 촉진

- 현재 일각에서는 반중정서로 인해 웨강아오대만구 전략이 홍콩 및 대만의 민주화 탄압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 충남도는 웨강아오대만구 전략이 충남도 베이밸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미래 한중 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한 상호 노력 필요

○ 베이밸리 건설에 대한 중국 내 홍보 및 교류·협력 증대

- 현재 중국의 웨강아오대만구는 한국에 어느 정도 알려졌다지만 충남도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한국 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거의 알려

12) 웨강아오대만구와 베이밸리를 매개로한 충남도와 광둥성 간 교류·협력 방안은 중국전문가(김기호, 김유익, 박철현, 조은교, 한종구)의 의견을 반영해 필자 작성

지지 않는 상태

-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와 광둥성 간 베이 경제권에 대한 정기적인 학술교류, 또는 국제적인 베이 경제권에 대한 학술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및 협력
- 한편 충남도는 2025년에 처음으로 베이밸리 국제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시 웨강아오대만구 추진 주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3) 경제교류 활성화

○ 양 지역 스타트업 공동 육성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벤처협회 등과 웨강아오 주요 하이테크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한중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안 발굴
- 충남도와 광둥성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창업포럼’(가칭), ‘한중 이노베이션 포럼’(가칭) 등을 공동으로 개최

○ 양 지역 기업인 네트워크 강화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과 충남도 기업간 연계를 위한 매칭콘테스트, 산업협력 지원 사업 등을 실시

○ 양 지역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 웨강아오대만구와 베이밸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충남연구원, 광둥성사회과학원, 선전개발연구원 등과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 진행
- 구체적으로, 주요 산업별 공동연구 강화, 사회과학원을 통해 광둥성 주요 지역별 교류 기반 마련, 연 1~2회 상호 방문을 통해 정보교류 및 경제협력 포럼 진행

○ 웨강아오대만구는 제조혁신 지역이나, 최근 미중 갈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 투자 유도

-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 중국은 현재 우회 수출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충남도는 광둥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 등이 제3국인 한국, 특히 충남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도출

4)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증진

○ 저탄소, 탄소중립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 증진

- 충남도는 2022년 ‘충남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탈탄소, 탄소중립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
- 중국은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의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정부 및 부문별로 ‘쌍탄(탄소피크, 탄소중립)’ 실시 방안을 수립했으며, 특히 2023년 11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피크 시험지역 명단’이 나왔는데 광둥성(광저우시, 선전시, 자오칭하이테크개발구)도 그 중의 하나로 지정
- 최근 2030년 목표로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탄소피크(碳达峰)는 기존 ‘저부가가치, 탄소 고배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탄소 저배출,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광둥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목표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인 언더2연합(Under2 Coalition) 2024~202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의장을 맡으며 세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광둥성, 특히 탄소피크 지역과의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

○ 신재생에너지,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 대한 교류 증진

-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적임.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대만구의 에너지 공급 전략과 제반 인프라에 주목 필요
- 예를 들어, 선전은 전기차 보급률이 80%에 육박하고 광저우와 선전의 탄소배출 권거래 규모도 중국 내 최고 수준임. 또한 바다에 면한 대만구의 특성상 주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도 눈여겨 볼만함. 주하이의 마카오 접경지역인 형친(橫琴)개발구에는 대만구의 재생가능에너지 및 탄소중립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는 쇼룸도 존재(橫琴數字零碳島共享實驗室)
- 한편 광둥성은 아열대 기후의 특성상 해안 지역에는 망그로브숲(紅樹林)을 보호 관리하고 있고 수질정화, 탄소고정, 갯벌생태계 등의 다양한 생태적 가치 보존과 개발 수요 사이의 균형을 추진 중

- 이처럼 광둥성의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정책은 충남도와 유사점이 많은 만큼 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적극 필요

5) 사회통합 경험 연구 및 벤치마킹

○ 충남도의 미래 ‘사회통합’을 위해 웨강아오대만구 경험을 연구하고 벤치마킹 추진

-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은 공식적으로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은 대륙에서 생활하면서도 금융, 세금, 복지 등 기본적인 점에서 대륙 주민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대우 수혜
- 이것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 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동등한 대우’를 통해서 광둥성 9개 도시 주민과 홍콩 및 마카오 주민 사이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웨강아오대만구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
- 현재 충남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와 정착을 통한 인구 규모 유지가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식 필요
- 중요한 것은 충남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력만 이용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주와 정착을 통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주민이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와 기존 주민과의 융합과 상생을 위한 준비 필요
- 이를 위해선, 중국정부가 같은 중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언어, 문화, 습관 등에서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반환되기 전까지는 영국과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다른 체제의 국민이었던 홍콩과 마카오 주민을 기존 대륙 주민과 융합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경제적 정책을 채택했는지 연구하고 이를 충남도에 벤치마칭하는 노력 필요

6) 관광테마파크 및 교육특구 조성에 상호 협력

○ 차이나타운 및 코리아타운 테마파크 상호 건립(중장기 협력과제)

-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남도에는 중국테마타운(예, 차이나타운, 광둥거리, 웨강아오거리 등)을, 광둥지역에는 한국테마타운(예, 코리아타운, 한국거리 등)

을 상호 건립함. 충남도가 차이나타운 건립 시에는 인천의 차이나타운과의 차별성을 위해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국 남부의 문화, 언어, 음식 등을 접할 수 있는 컨셉으로 추진(한국인들에게도 홍콩, 대만 문화가 더욱 친숙하다는 장점 활용, 예: 홍콩 영화의 거리)

- 광둥지역의 코리아타운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 K-pop, 음식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 테마파크의 중심지로 건립하고 이를 위해 충청도에서도 적극 협력 및 지원

○ 국제교육 특구 건립을 위한 상호 협력

- 아산 베이벨리에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술인력이 거주하며 자녀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교육 특구 건립이 필요
- 영어권, 중국어권 국제학교 건립을 위해 광둥, 홍콩지역의 교육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광둥, 홍콩 등의 우수 대학의 분교를 충청도 베이벨리지역에 유치하여 교육 국제화의 제고 추진

참고자료 및 사이트

김민지. 2023.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를 사례로. 국토연구원.

서중원·이문형 외. 2019. 중국 주강삼각주 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지역을 중심으로. 제1권: 교통·물류 편. 산업연구원.

조철 외. 2019. 중국 주강삼각주 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지역을 중심으로. 제1권: 통상·산업 편. 산업연구원.

충청남도. 2024. 베이밸리 건설 기본계획(내부자료)

홍원표·사공정희·김양중·김진영. 2024.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 기본구상. 충남연구원.

홍원표·전춘복. 2024. 웨강오대만구 발전 현황 및 베이밸리 정책 연계:충남도·광둥성 협력방안 모색. 충남연구원.

KOTRA. 2023. 해외출장 가이드, KOTRA 광주무역관.

KOTRA. 2023. 해외출장 가이드, KOTRA 선전무역관.

KOTRA. 2024. 해외출장 가이드, KOTRA 홍콩무역관.

충남도청 홈페이지(베이밸리): <https://www.chungnam.go.kr/bayvalley/main/main.do>

粤港澳大湾区门户网: <https://www.cnbayarea.org.cn/>

<https://desert-outrigger-040.notion.site/121d8b8eabbd8003a1a9f8511288c131?pv=4> 大湾区 - 绿色低碳发展

<https://desert-outrigger-040.notion.site/122d8b8eabbd80e08e7cfeec6a26fd53?pv=4> 大湾区 - 交通发展计划

<https://desert-outrigger-040.notion.site/122d8b8eabbd80489ea1da260bf0dd54?pv=4> 大湾区 - 廣州東部城市規劃, 深圳河套地区